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목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주간충현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계웅

우리 교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요즘 24개 교구가 복음으로 뜨겁습니다. 교구 영성훈련과 총동원집회가 매 주일 또는 주간 시간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또는 총현기도원, 특히 총현기도원 내에 위치한 다목적 숙박·체육시설인 사랑관에서 진행 중인 영성훈련과 집회를 통하여 모든 교구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살전 2:19). 말씀을 통한 은혜와 더불어 성도 간에 나누는 친밀한 교제는 교구를 더욱

한 몸으로 연합시키고 있습니다(엡 4:4). 매 주일 찬양예배 시에 드러지고 있는 아름다운 교구찬양이 이들의 진실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영성훈련과 총동원집회를 통하여 구성원, 지역 등 각각 다른 것도 많은 24개 교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고전 12:27)이 되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시 한 번 전심전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롬 12:5).

* 코이노니아 휴게실, 6월 4일(토) 오픈 예정
(자세한 인사는 본지 7면)

성령의 말씀(금요찬양집회)

노아와 연약과
아브라함과의 연약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연약의 범위는 우주적이다(창 6:18, 9:15~17). 이는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살아 있는 생명체를 향한 서약이다. 하나님은 홍수의 심판 중에 노아를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

다. 그러나 여기에는 인류를 보존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홍수 후에 하나님의 서약은 모든 인류와 생명체에게까지 그 범위가 넓어진다. 약속의 내용은, 인간이 계속 악해져 감지라도 다시는 홍수로 이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부정적인 것(창 9:11)과 생명을 유지하는 조건들을 지구상에 계속적으로 보존해 주실 것이라는 긍정적인 것이다. 인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은 이 노아와의 연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을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은 생명 보존을 약속하셨고, 인류에게 그 생명을 귀히 여길 것을 요구하신다(창 9:3~6). 그러나 인간의 욕심, 부정, 적대심이 이 혜택을 거부하고 있다.

노아의 연약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 준다. 그 범위는 넓고 크다. 한 사람이나 장소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노아의 연약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맺으신 연약이 조건적인지 무조건적인지 질문하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가를 잘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인간으로부터 반응을 요구하신다. 비록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연약을 지켜가고 계시는 분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말 그대로 동물도 인간도 그 생명을 무시함으로 자연 세계에 엄청난 재난을 쌓아가고 있다. 환경적인 건강이나 재앙은 인간의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호세이는 21세기 환경전문가보다 훨씬 전에 이를 감지하였다. 그대에 호세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의 행위를 고발하였다(호 4:2~3).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연약 역시 우주적이다. 그러나 노아와 맺으신 연약과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 노아와 맺으신 연약은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한 생명체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근거이다. 때로는 노아의 연약을 가리켜 ‘일반 은혜’라고 부른다. 창조주의 자비가 없는 선한 뜻에 의하여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차별이 없이 햇빛과 비를 주시니까(마 5:45) 것과 같은 것이 ‘일반 은혜’이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맺으신 연약은 인류의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이 그 기초다(창 12:1~3). 이 연약의 목적에는 보편성이 있다. 즉 하나님의 구속의 축복을 열방에 주시기 위함이라는 목적은 보편성을 보여준다. 물론 열방 모든 나라와 민족이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모든’이라는 단어는 대표하는 뜻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구속의 범위는 우주적이다.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맺어진 그 연약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창 17:2~5). 이 연약의 실체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특별하게 맺어진 내용에서 볼 수 있다. 이는 궁극적이고 우주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특별히 맺으신 연약이다. 이 연약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반응은 할례이다(창 17:10~11). 할례의 목적은 아브라함이 그 자손과 그와 함께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려 함이다(창 18:17~21). 할례는 단순히 밖으로 나타낸 전통예식을 넘어서 중심에서 실질적으로 순종하는 약속을 포함한다. 할례는 구약 그 자체 안에서 잘 인식된 진리이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연약은 우주적이고 선교적인 목적과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실질적이고 도덕적인 반응을 요구하신 것을 합쳐서 생각하여 볼 때 두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민과 열방을 위한 이들의 역할이 선교의 사명과 이들의 도덕적인 삶의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체로서 이들의 역할과 사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삶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아멘.

6월 교회일정

- 8일 (수) 정기당회(수요2부예배 후)
- 12일 (목) 오순절 생령강림주일
- 24일 (금) 2011년 제2차 정기총회(금요찬양집회)
- 26일 (주) 2011년 제3차 역세복역(찬양예배)



DAILY CHRISTIAN LIFE

(17) Whatever you do in word or deed, do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hrough Him to God the Father. (18) Wives, be subject to your husbands, as is fitting in the Lord. ... (22) Slaves, in all things obey those who are your masters on earth, not with external service, as those who merely please men, but with sincerity of heart, fearing the Lord. (23) Whatever you do, do your work heartily, as for the Lord rather than for men, (Colossians 3:17~23)

The gospel message is addressed to everyone,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n. 3:16). This good news relates to "whoever" because we have all sinned,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Rom. 3:23). No one can be made righteous following the Law, but there is one way God has provided, "But now apart from the Law the righteousness of God has been manifested, being witnessed by the Law and the Prophets, even the righteousness of Go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for all those who believe; for there is no distinction ... being justified as a gift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which is in Christ Jesus" (Rom. 3:21~22, 24). All can be saved by faith in Jesus Christ. God's love came down upon all sinners,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Rom. 5:8). When we become Christians our position in life absolutely changes. This life saving spiritual transformation also changes our daily life because now we practice our faith.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you and a non-believer? As a Christian, God has made you a citizen of heaven. Doesn't that thought bring excitement to you and make you so happy? Christians have earthly responsibilities. We have to practice our faith. How do we live the daily life of a Christian?

The Master of everything we do must be Jesus Christ, "Whatever you do in word or deed, do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hrough Him to God the Father" (Col. 3:17). Too many of today's Christians are unhappy. Why would a citizen of heaven be unhappy? If you are doing things that displease our Lord Jesus or you are keeping part of your life to yourself then you certainly won't be happy. Seeking fellowship with those who live for this world is also a big problem. The result is a compromising daily life that carries a touch of defeat in your daily victories. Do you still want to compromise with non-believers? Do you want your joy to be tempered with remorse? Do you want your happy blessings to be flavored with sadness? "Therefore be careful how you walk, not as unwise men but as wise, making the most of your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So then do not be foolish, but understand what the will of the Lord is. And do not get drunk with wine, for that is dissipation, but be filled with the Spirit, speaking to one another in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singing and making melody with your heart to the Lord; always giving thanks for all things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to God, even the Father; and be subject to one another in the fear of Christ" (Eph. 5:15~21). If you are not happy in Jesus then you find your happiness in money, fame, doing well and the like. If you believe you are a born again Christian, then every single moment you are changed. Do you live every single moment in the name of Jesus? Please wake-up and recognize that Jesus Christ is your boss! Whatever you do, do it in His name. There's

no division of sacred and secular for us. Jesus Christ should be the Master of all you do because it's the only way.

The manner of everything we do must be centered on Jesus, "Whatever you do, do your work heartily, as for the Lord rather than for men" (Col. 3:23). It doesn't make a difference what the work, "Wives, be subject to your husbands, as is fitting in the Lord. Husbands, love your wives and do not be embittered against them. Children, be obedient to your parents in all things, for this is well-pleasing to the Lord. Fathers, do not exasperate your children, so that they will not lose heart. Slaves, in all things obey those who are your masters on earth, not with external service, as those who merely please men, but with sincerity of heart, fearing the Lord" (Col. 3:18~22). Jesus is the One who give you eternal life. Can you believe it? He sacrificed everything for you, giving you the best of love and doing the best for you. Now, whatever you do for Jesus do it wholeheartedly. Do it ethically and enthusiastically! Don't lag but lunge into every task. Don't drag but dive into every responsibility. Don't groan but give full devotion to every job. If you want real joy in living, then start doing whatever it is you do as to the Lord. Work for the Father in heaven, not just the employer. Work for Christ, not just the company. Do everything for Jesus Christ, not your own self satisfaction,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Now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have crucified the flesh with its passions and desires" (Gal. 5:22~24).

The motive of everything we do must be centered on Jesus, "Whether, then,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all to the glory of God" (1 Cor. 10:31). This is so important. This is exactly how the daily life of a Christian must be lived. What are you doing? Is it all to the glory of God? Are you actually living for the glory of God? Please understand that whatever you do affects others. What does your life show to those who are watching? What does your mouth say to those who are listening? Will your conduct bring others to Christ? Matthew 5:13~14 say,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but if the salt has become tasteless, how can it be made salty again? It is no longer good for anything, except to be thrown out and trampled under foot by men.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A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 Are you salty? Are you glowing? As a citizen of heaven are others tasting your salt and seeing your light? Are you showing them the Lord or the world?

My dear friends, making Jesus Christ Lord of your life transforms your daily duties into divine delights. If Christ is not Lord of all for you that means He is not Lord at all. Are you willing to make Him Lord of all your life? Please surrender completely to Christ without delay. Let the Master influence your manners and motives in whatever you do to reflect God's glory. Amen. ■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

⁽¹⁷⁾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¹⁸⁾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히 하라 ... ⁽²²⁾ 종들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²³⁾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17~23)



김성판 목사

복음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이 복음은 ‘(믿는) 자마다’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의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길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 3:21~22, 24).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인들에게 임해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의 삶의 위치는 완전히 바뀝니다. 이 영적인 변화는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불신자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러분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흥분시키고 너무나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에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골 3:17). 오늘날 행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행한 것일까요? 만약 우리 주 예수님을 불행하게 만들거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확실한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매일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타협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불신자들과 타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후회하게 될 즐거움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슬픔으로 가득하게 될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엡 5:15~21). 만약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물질, 명예, 공로와 같은 것에서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만약 거두든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여러분은 매순간마다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제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인정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성경한 것과 세속적인 것의 구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방법은 예수님 중심적이어야만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 3:23).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히 하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과묵하게 하지 말라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버지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골 3:18~22).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희생하시므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열정적으로 하십시오! 모든 일에 꾸물대지 말고 전진하십시오. 끌려 다니지 말고 모든 일에 책임을 다 하십시오. 불행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삶에서 참된 기쁨을 원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사람을 위해 일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회사가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만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 5:2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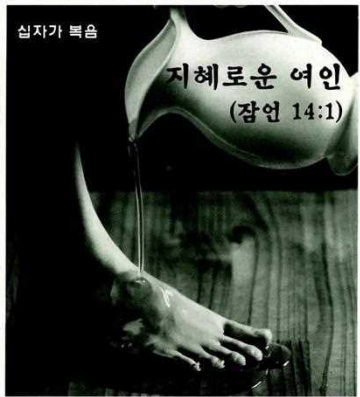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모든 원동력은 예수님 중심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일생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말뿐이 아닌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모습을 보고 있을까요? 또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어떤 말을 듣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모습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계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13~14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은 한 뼘 빛을 내십니까? 빛을 내고 있습니까? 천국 시민으로서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썩맛과 빛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주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될 때에 여러분의 매일의 사역은 하늘의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전부가 아니라면, 예수님을 전혀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삶 전체의 주인으로 기거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십니까? 제발, 지체 말고 그리스도께 완전히 항복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주님께 하듯 그 방법과 원동력에 간섭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합시다. 아멘. ■

수요1부예배 / 월요새벽기도회

십자가 복음

지혜로운 여인
(잠언 14:1)

성경이 제시하는 여인상은 지혜로운 여인이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잠 14:1, cf. 잠 31:10, 30).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운다는 잠언의 가르침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전통적인 가족상과는 분명히 다르다. 또한 '집을 세운다'는 의미도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하지는 않

는다. 지혜로운 여인이 세우는 집은 믿음,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있다. 즉, 지혜로운 여인은 여호와의 경외함으로 생명의 샘이 넘치는 집을 세운다는 것이다(잠 14:27, 31).

● 드보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혼란기를 겪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사사를 세우셨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였다. 그녀는 당시 막강한 전력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가나안의 왕 아비멜에 맞섰다(사 45:7).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 아비멜과 시스라가 이끄는 가나안 군대와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비교가 안 되었다. 하지만 믿음으로 싸운 이스라엘은 승리했다(사 5:1~3). 지혜로운 드보라는 압제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세웠다.

●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로 알려진 요게벳이 살던 시대도 몹시 어려웠다. 애굽의 노예로서 힘든 노역을 감당해야 했으며, 낡아 아이를 낳으면 죽임을 당했다. 그럼에도 요게벳은 3달 동안 아기 모세를 보호했으며, 이후에는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의해서 양육되도록 하였다(출 2:2~6). 이와 같은 일을 하는 데 모세의 누나인 시므아의 역할도 컸다. 여하튼 모세는 죽어야 할 상황이었지만 요게벳과 미리암을 통하여 바로의 왕자로

서 살 수 있었다(출 2:9~10). 지혜로운 요게벳은 자신의 가정,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녀의 믿음이 새 이스라엘을 세웠던 것이다.

● 한나 자녀를 낳지 못했던 한나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주님은 당상을 경외하며 간절히 기도하던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위대한 사사이며 제사장인 사무엘이 태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주님을 위해 헌신할 것을 서원하였다(삼상 1:2, 10~11). 그녀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의 샘(잠 14:27)이 되는 은혜를 입었다(삼상 2:1~3).

● 롯 베델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하였다. 먹고 살기 위해였다. 그러나 10년간 모압에서의 삶은 비참했다. 결국 나오미만 살아남았으며 베델레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때 두 며느리 중 롯은 나오미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룻 1:16~17). 이후, 모압 여인이었던 롯은 베델레헴에서 만난 보아스와 재혼하였고, 그녀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 천대받던 이방 여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족보는 이어졌다.

● 에스더 에스라는 고아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사의 왕비가 되었다. 최하의 신분에서 최고의 지위에 오를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민족이 위협에 처했을 때 자신의 지위는 물론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아갔다(에 4:15~16). 결국 이스라엘은 몰살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나아간 에스더로 인해 이스라엘은 구원받았다.

● 십약의 여인들 이방 여인으로 장사꾼이었던 루디아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변했다(행 16:13~15). 그녀를 통하여 아시아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다. 또한 시골 나사렛의 한 처녀였던 마리아는 예수를 낳은 통로로 쓰임 받았다(눅 1:35, 38). 마리아의 믿음으로 온 열방이 구원을 받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따라갔던 사람들도 제자들이 아닌, 여인들이었다(눅 23:48~49). 또한 승천하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무리 중에서 여인들은 주축이 되었다(행 1:14).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주님께 헌금했던 사람도 가난한 과부였다(눅 21:3~4). 특히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반드시 기억되라 하고 한 사람도 여인이었다(막 14:3, 8~9). 이들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았다.

이제 우리 차례다. 지금 주변을 돌아볼 때 성공적인 삶을 사는 여인들을 많이 찾을 수 있지만, 지혜로운 여인을 찾기는 힘들다. 지혜로운 여인은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집을 세운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 십자가로 충만된 주님의 집을 세우기 원한다. 아멘.

메시아의 복음 60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요한복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는 당시 종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들이었다. 이들에 관해 요한복음은 곤란복음

서가 기록하지 않은 부분을 말하고 있다. 우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를 설명할 때, 그 시작을 가롯 유다로부터 언급하고 있다. 또한 곤란복음서에 기술된 무리 이외에 로마군대가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요 18:3). 특히 요한은 로마군대의 지휘관이었던 친부장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였다(요 18:12). 또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잡는 데 어떤 비방이나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단순히 함께 서 있었다고 기술하였다(요 18:5). 유대에게 특별한 죄가 없어 보이기에 한다면, 그러나 그의 실체는 어떠한가?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을 대조하여 진리를 설명하였다(요 1:5, 3:20). 예수님이 진리이시며, 빛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요 9:5, 12:35).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모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요 13:46). 그러나 가롯 유다는 빛이 아닌, 어둠을 향해 나아갔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요 13:30). 예수님은 빛이 아닌 어둠을 사랑하는 자가 정죄 받을 거라는 사실을 가르쳐주셨다(요 3:19). 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을 약속하셨다(요 8:12). 따라서 우리는 빛을 따라가야 한다. 즉, 예수님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이다.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의미, 무가치한 존재가 된다. 이들에게 종교는 자신의 삶을 위한 도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를 기술한 요한복음 18장에는 특이한 점이 있다. 예수님이 잡

으러 온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모두 넘어졌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몰라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요 18:6). 뒷걸음치다 넘어진 자들은 종교의 권위자들, 성전 맡은 자들, 잘 훈련된 군인들이었다(행 4:1~3, 5:26, 21:30~32). 그래서 이들이 넘어졌다는 사도 요한의 묘사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또한 예수님을 잡은 후에 무리가 간 곳은 대제사장 가이바의 정원 안나스의 집이었다(요 18:13). 당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 중에 로마군대와 친부장이 있었음에도 왜 그들이 로마의 관직이 아닌 그곳으로 가장 먼저 갔는지 논쟁이 되고 있다. 안나스의 집을 거쳐 가이바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관청으로 가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이때 빌라도는 로마군대의 총지휘관으로서 예수님을 잡는 데 로마군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요 18:29~30).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를 기술한 사도 요한이 의도한 것은 논쟁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다. 가롯 유다를 신봉으로 당시 모든 종교의 권위자들, 정치의 권력자들이 어둠의 세력을 향해 나아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따르기로 한하는 그 세력은 어둠이다.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필요 없다. 따라서 그들은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으며, 죽이는 데 연합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 이해 못하는 부분을 놓고 불필요한 논쟁을 벌일 필요 없다. 우리는 의식 또는 무의식중에도 어둠의 권세를 좇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 성경구절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다. 다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흑암에 사는 많은 영혼들에게 빛을 전하는 것이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아멘.

*매주 월요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망 끝까지

검은 피부에
하얀 눈의
아이들

나의 첫 선교지는 인도였다. 도착한 첫날 더러운 공기와 짜고 입에 안 맞는 음식, 말을 타고 달리는 듯한 버스로 이동하며 어떻게 7박 8일을 견딜지 걱정되었다. 알레르기성 비염과 췌장은 위장약만 해도 한 다발이었고, 극심한 더위에 5분만 차를 타고 말미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모든 걱정이 쓸데없는 것이 되었다. 많은 분들의 기도로 주님이

나를 도우셨는지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밥도 잘 먹고 말미도 전혀 지치지 않았다.

떨렸던 첫 사역은 생각보다 덜 힘들었지만 우리 선교팀은 어딜 가나 동물원의 원숭이 신세였다. 처음 방문한 마을에서 힌두교도들이 우리를 내쫓으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그들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저녁 사역회가 시간에 그들이 우리를 받아들인 이유가 외국인이냐 신기해서인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말하자 팀장님께서 우리나라도 똑같았더라 성경책을 벽지로 쓰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었다. 첫 사역이라 조금 소심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몇 년 전에 얼마가 성경책 앞면에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정음이여 되기를' 이라고 써 주신 말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정말 그 말대로 된 것 같아 기뻐했다. 검은 피부에 하얀 눈과 이를 드러내며 웃어 보이던 아이들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돌아가서도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고 싶고, 선교를 꼭 다시 가고 싶다.

김정윤(고등부)

얼마만큼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선교는 역시 주님이 하시며,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도 다를 수 있다. 다시 한 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경험, 내 지혜를 내려놓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는 모습으로 선교훈련과 사역 준비, 사역에 임하였던 나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파송 이후 사역지에 도착하여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인하여 한 팀원만을 섬기는 사역으로 사역기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게는 저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선교사역을 감당한다 하면서 얼마만큼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영혼사랑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 열매는 얼마나 되는가?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사랑하는가? 얼마나 주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가? 나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경각에 처해 있을 때,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 나를 선교사로 보내신 주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팀원들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며 주님이 앞장 서 계신다고 은혜를 나누었음에도, 긴박한 순간에 직면하자 두려워 떨며 걱정 근심하는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내보이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인도, 간섭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걱정, 근심하는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치료하심, 회복하심이 나를 붙들고 간섭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감사함으로 사역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다음 선교에서는 더 많은 기도와 훈련, 준비를 통해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할 때, 나 역시 더 무릎 꿇고 기도로 준비하며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함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준호(교사, 중등부)

늘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여느 때처럼 불비는 지하철 안에서 교회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을 가벼웠다. 처음 가는 선교였기에 더욱 그랬다. 그러나 그렇게 설레는 기분으로 떠난 선교는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나를 언어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현지인들이 전혀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심지어 한국에서 왔다는 간단한 말에도 엉뚱한 소리를 들어야 했다. 팀훈련을 받을 때에 '그래도 대충 알아들었지' 하고 조금 소홀히 했는데, 사역을 하면서 많이 반성이 되었다. 주님의 일을 하러 가면서 중요한 언어를 소홀히 한 것이 주님께 너무 죄송했다.

언어가 많이 부족해서 힘들었지만 성조를 바귀하면서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힘썼다. 간간히 나의 어수룩한 발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잘 따라하는 분들도 많았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꼈다. 정말 사역을 하면서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통해서 우리 팀원들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다던 것 같다. 이번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서 너무 기뻐했다.

박정은(중등부)

그 고통이
심해질수록

인도에서 하나님의 크신 보살핌을 받고 무사히 사역을 마치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사역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저희 팀은 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서 말미도 하고 속도 올릴거라고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쳤는지 갑자기 아팠습니다. 귀일이 부어오르고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상태는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양쪽 귀일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심해질수록 저는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는 주님이 고통을 덜어주셔서 열심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통증 때문에 짜증이 났지만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사탄이 시험하는 거라고 생각하여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최용일(고등부)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4개 팀)

기 간	팀	팀 장
5월 30일(월) - 6월 6일(월)	10교구 2팀	유성남
5월 30일(월) - 6월 7일(화)	1교구 1팀	이윤의
6월 1일(수) - 6월 9일(목)	11교구 3팀	이현진
6월 1일(수) - 6월 9일(목)	14교구 1팀	김중훈

간증과 나눔

니느웨 백성의 회개

올해는 특별히 대학부와 청년1부가 연합으로 부흥회와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9일 저녁, 각자의 삶을 바르게 시느라 피곤하였을 텐데도 대학부와 청년부 회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충현기도원에 모여 요나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의 모습은 나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요나를 위해 예비하신 물고기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나를 삼키고 토해내었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꺼려하고 내 생각대로 살았는지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니느웨 백성의 회개로 인해 진노의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위임 목사님, 장로님들과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학부, 청년부 지체들이 목사님, 장로님들께 여러 질문을 하고 조언과 권면을 받았는데 서로의 다른 생각을 듣고 이해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체육대회 때는 진행을 맡게 된 탓에 부담도 크고 걱정도 많았지만 순서마다 하나님이나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체육대회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모든 진행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며 청년부와 대학부가 각자의 팀원들을 응원하고 격려해주며 점점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대학부와 청년부의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나도 기뻐고, 주님도 얼마나 기뻐하실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기도원에서의 1박 2일은 이번 체육대회 주제인 "Reunion"을 정말로 이루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학부와 청년부가 하나 되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수경(대학부)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자들



그동안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뵈을 때마다 나를 위하여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간구하였으며,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주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번 영성훈련 중에 내가 드리는 기도가 과연 얼마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는지 다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속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와, 자꾸만 드러나려 하는 나 자신의 생각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의 연합함을 감추고 나의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기도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주님께서는 설교말씀을 통하여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알게 하시기에 스스로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나의 계획과 필요에 의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주님의 계획과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자들이 연합하여 합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지서 돌보아주시며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 또한 듣고 계시는 주님이시기에 이번 2.5교구 연합 영성훈련의 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참 기도의 의미로 나를 다시 세워 주심에 감사드리며 늘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채은미(집사, 5교구)

주님의 고난, 주님의 사랑

내 마음이 떨리는 골고다. 해골이라는 주님의 처형 장소를 또 다시 돌아보며 내 죄를 돌아보며 "주님, 죄송해요"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골고다 해골 같은 나의 심령에 십자가를 심어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귀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랑. 나조차 나를 포기할 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텅 빈 내 마음 속에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 쓰러지고 낙심할 때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신 주님의 사랑. 주님,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고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어디든 어디든 한 손은 주님의 손 꼭 붙잡고 한 손은 자기 저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 손 붙잡고 나를 위해 예비해두신 하늘 집에 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품어주실 아버지 계신 저 집에 나 그렇게 이르기를 원합니다.

왕우민(집사, 청년1부)

주님이 주신 주기도문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교구영성훈련을 통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으로 주님이 친히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다시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외식하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닌 진실한 기도가 무엇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무엇이고,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라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에 있게 하시며 복을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하라 하셨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관한 기도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한 날에 필요한 만큼만 작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육적 양식만이 아니라 일용할 영적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하시며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므로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른 이를 용서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신다.

또한 예수님의 능력만이 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 그분 뜻 앞에서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위함을 일깨워 주셨다.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하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가르쳐주신 대로 기도하며 회개하고 말씀과 찬송 안에 거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김성은(집사, 3교구)



새가족 / 코이노니아 휴게실

새가족양육부 수료자

십자가를 깨달을수록 감사하다

✠ 아내가 처음 금요찬양집회에 참석한 날, 찬양을 듣고 마치 천국 같았다고 했다. 당시로 천국을 한 번 느껴 보라고 권유해서 참석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사랑 자체이신 분이시다. 십자가는 나를 구원해 주신다. 마음의 안정과 믿음을 얻었다. 교회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한용방)

✠ 예수님은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로 우리를 구하시니 분이시다. 십자가의 길은 나를 완전히 버리기 전에는 보이지 않고 갈 수도 없으며, 남은 생 전부를 걸고 가고 싶은 길이다. 찬송을 제대로 하며 산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좋다. 또한 매주 월요일 새벽 '메시아의 죽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좋다. 새벽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는 기쁨,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 그래서 삶이 평안하다. 나 자신의 기도는 물론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윤달)

✠ 신랑이 먼저 교회를 다니게 되어 저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는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십자가는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해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말씀 그대로가 믿음, 믿음이십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김은숙)

✠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요 보호자입니다. 십자가를 깨달을수록 감사하다. (이정필)

✠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도 없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함을 주시며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그 은혜로 구

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십자가 앞에 날마다 회개함으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이 있게 한다.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려 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하셔야만 됨을 알고 성령님의 도움을 날마다 구한다. (홍승희)

✠ 어머니가 회교를 다니기 시작하셔서 나오게 되었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평강의 예수님이시다. 십자가는 내 삶의 기준이 된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되었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 (한민선)

✠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죄 지은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교회생활은 나의 생활에 잡념을 없애 주었고 오로지 주님을 향한 믿음 생활이 전부를 차지하게 되었다. 신앙생활을 하며 나에게 잘못한 점이 없나 생각하게 된다. (박영은)

✠ 아들 학교 선생님과 아들 친구 엄마들의 견도에 의해 나오게 되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다.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이 전혀 달라졌다. (고용배)

✠ 충현복지관에 입사하게 되어 서울로 올라왔고,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 회교를 찾던 중 주님의 인도로 나오게 되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게 된다. 기도와 주님과 소통할 수 있어 좋다. 내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이 주님이라고 생각하며 나를 지켜주시는 생각에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었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다. (전예경)

6월 4일(토) 코이노니아 휴게실 오픈 예정



젊은이들(대학, 청년부)이 주도하여 준비한 믿음의 쉼터가 6월 4일(토) 13시에 개장됩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와 친목임권 양성의 통로가 될 코이노니아 휴게실의 적극적인 이용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위 치 충현교회 제2교육관 1층
메뉴 커피 · 음료 · 쿠키 · 머핀 등
이용방법 쿠폰제(쿠폰 구입은 사무국)
이용시간 화요일~금요일 · 주일(10:00~16:00)
토요일(10:00~20:00)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현교회의 새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2228	양재연	양육반	11	김현정	2259	홍찬민	유아부	13	한남수
2229	최정혜	청년1부	24	이정희	2260	최정균	청년1부	20	장병준
2230	한원철		24	강정희	2261	유은숙	유아부	9	이정희
2231	오승현	대학부	9	박영은	2262	이문우	양육반	11	박주영
2232	한승우		14	강정희	2263	유순자	양육반	9	한동배
2233	김보영		14	강정희	2264	명수미		15	김희경
2234	서재형		4	박민호	2265	양수빈	초등1부	1	최선미
2235	최성하	양육반	19	신동식	2266	김진서	양육반	12	김근아
2236	최미화	양육반	19	최정순	2267	조영희	양육반	4	최복현
2237	박막걸	청년1부	2		2268	신선숙	양육반	17	김영희A
2238	안수익	중등부	12	백매순	2269	김영희			
2239	이선재	양육반	18	임태수	2270	최복순			
2240	백승현	양육반	2	남영순	2271	김은희	중등부	3	
2241	박혜진	양육반	23	양금희	2272	신원희	청년1부	10	이향순
2242	김현진	양육반	22	김종현	2273	김종수	양육반	15	김익재
2243	안영상	대학부	12	안희희	2274	최서연	초등1부	13	권영숙
2244	원재훈	양육반	23	이민숙	2275	황주진	양육반	15	김영숙
2245	정재현	초등1부	1		2276	윤준우	양육반	21	박태남
2246	서성연	양육반	13	이재하	2277	최희찬	양육반	18	김익환
2247	배민영	고등부	7	김미영	2278	임희정	양육반	18	김영미
2248	이혜진	양육반	18	박진민	2279	최동준	초등2부	18	신광철
2249	김희선	양육반	23	황은미	2280	신덕기	양육반	15	지은미
2250	김윤희	양육반	22	김재호	2281	김진서	양육반	11	안도영
2251	한수진		15	윤지현	2282	김경자	양육반	1	정선현
2252	이상준	양육반	22	정규현	2283	박미희	양육반	18	안연식
2253	박상진	양육반	1	이소주	2284	김영옥	양육반	14	김세종
2254	이한우		3	고민경	2285	김태욱	양육반	14	김정원
2255	이성희	고등부	3	주은숙	2286	김용경	양육반	15	마민이
2256	김종혜	양육반	3	정신숙	2287	김영곤	대학부	18	송진경
2257	안서연	유아부	12	김영모	2288	김도형	영아부	17	김영희A
2258	방순호	대학부	19	공정자					

